

대한치과교정학회 제28회 종합학술대회 개최

지난 11월28일~29일 양일에 걸쳐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정규림)의 제28회 종합학술대회를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1천1백여명의 회원과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성황을 이루었다.

많은 회원이 등록하여 교정학회 사상 유래를 볼 수 없이 성황을 이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포괄적 교정치료'란 주제로 국제회의장 대강당에는 국내·외 유명연자들의 특강 및 심포지엄이 있었으며, 국제회의장 여러 소강당에서는 구연, 포스터 발표 및 테이블 클리닉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회의 운영과



진행면에서도 진일보한 면모를 보였다.

특히, 아트 타베트교수(호주 퀸즐랜드대)는 『orthodontics? not for me』의 강연을 비롯 루니치로 리다교수(일 동경의과치과대), 김일봉박사, 양원식(서울치대)교수의 특강은 회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심포지움등 기타 행사에서도 많은 호응을 보였다.

한편 교정학회는 27일 리즈칼튼호텔에서 가진 임시평의원회에서 제2기 평의원장에 서울치대 양원식교수를 선임시켰으며, 새로이 제 2기 평의원회를 출발시켰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회칙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11월 23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의웅)는 연세치대 병원강당에서 이사장과 사무총장제 도입과 평의원회 도입문제등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정기총회에 인준받은 이사장 및 사무총장제 조직개정은 물론 이를 근간으로 평의원회와 새로운 개념의 학회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선보였다.

이 개정안에는 임기 3년의 이사장은 회기 명예대표로 내세우며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임기 5년의 사무총장이 맡고 통상 학회의 대표로 인식되어오던 학회장은 임기 1년으로 매년 열리는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맡도록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사장과 사무총장과의 역할, 임원임기가 각기 다른 문제, 평의원회 구성 및 선출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 성료

지난 6일~7일 양일에 걸쳐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정종평)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제 36회 종합학술대회를 개최 내빈과 여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특강 및 심포지엄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권영혁(경희치대)교수의 「치근이 개부 병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졌으며, Jack Caton 교수는 「The Response of the Peridontium to Theraph」란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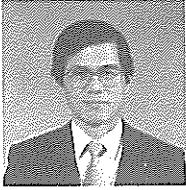
특히 「사회속의 치주 치료」를 주제로 개인 및 종합병원에서의 치주치료의 문제점을 다룬 심포지움은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이해준 원장이 「개인치과에서 치주치료의 문제점」을 유인철교수(서울치대)가 「치과대학병원에서의 의료보험 환자 진료실태」를, 복지부 의료정책실 정학기사무관이 「치과임상중 치주치료의 추이와 국가정책」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유인철교수는 이날 「치과질환중 치주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치과분야 의보진료건수중 치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68%에 불과한 사실은 우리나라 치과진료가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한강치과기공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1-11
장한빌딩 603호

TEL 546-4900

대한치과보철학회 정기총회 인정의제 실시 연기 결정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이호용)는 지난 11월 29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인정의제 실시를 내년 4월에 열릴 계획인 치협대의원 총회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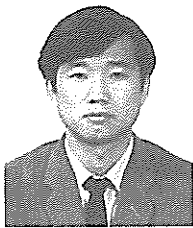
이날 정기총회에서 보철학회는 인정의제 실시의 중지를 요청한 치협의 의견을 수용해 이처럼 인정의 실

시를 연기하게 되었다.

치협이 제46차 대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인정의제도 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각 학회에 요청한데, 대해 인정의제 실시 연기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학회는 보철학회를 비롯,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광남), 대한치과이식학회(회장 최광철),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김영구), 대한치과 보존학회(회장 박상진) 등 5개 학회이다.

한편 이날 총회와 함께 치위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임상가를 위한 보철과 관련된 치주, 근관치료, 교정 및 구강외과」를 비롯해 해외연자초특강도 진행됐다.

레이저학회 발기인대회 성료 초대회장에 김기석교수 선출



(가칭)대한레이저치의학회는 지난 11월 28일 치협회관에서 학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1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이저의 임상응용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발기문을 채택하고 단국치대 김기석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95년에 창립된 대한레이저치의학연구회는 그동안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개최해 오다가 이날 발기인대회를 가짐에 따라 내년초에 학회창립총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준비에 들어갔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32차 정기총회 성료

지난 11월 25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박용의)는 제3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팔래스호텔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5억8백여만원의 9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고형철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분과학회창립지원, 치과기공요금 현실화추진, 치과기공용기 자체 가격조사등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하는 한편 치기협사상 처음으로 제33차 종합학술대회를 서울이 아닌 지방(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는 사업비 7천4백만원, 회비2억2천6백여만원등 전년보다 9천여만원 증액된 5억8백여만원을 승인했다.

그러나 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일반안건으로 다루어 할 정관개정, 시도회상정안건, 협회비 및, 시도 회비납부 변경의건, 회관 건립기금 모금의 건등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정호양씨가 협회대상을 수상했으며 김태영씨에게 공로패를, 인천·경남·제주지부에 표창패를 각각 수여했다.

연세치대 동문회 정기총회

연세치대 동문회는 지난 12월 7일 연세치대병원 7층 강당에서 대의원총회를 강당에서 대의원총회를 갖고 박인환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정근철, 김영빈 동문을 신임감사로 선출했다.

또한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관4조 라항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부분을 가항으로 변경,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97년 예산의 후생비를 30%정도 증액키로 하고 연회비 이외에 조의금을 1인당 1만원씩 적립, 동문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조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희치대 서울동창회 신임회장에 김성욱씨 선출

경희치대동창회 서울지부의 제18차 정기총회를 지난 11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 김성욱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는 우이형, 박용순동문을 부회장에 마경화동문을 총무이사에 각각 선임하고 소혜일, 황백연동문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재규총동창회명예회장, 지준수총동

창회회장, 이기수, 김여갑교수와 서울치과의사회 백순지회장과 이충복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총회는 1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지부 총회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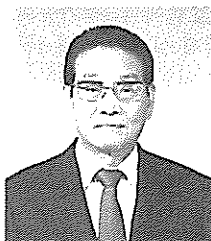
전남지부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전남지부는 창립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부 임원을 비롯 대의원, 분회임원, 내빈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전남치과의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조향, 유충택씨 등 원로회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한편 유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반세기동안 전남치과의사회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순 치협고문 별세 協會葬으로 치류-



김동순 치협고문이 지난12월 12일 향년 76세로 별세했다.

故김동순고문은 1944년 서울치대를 졸업하고 서울치대에서 교수로 역임했으며 두차례에 걸친 치협회장직과 한국치정회장을 역임한바 있다.

치협은 치협장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葬으로 치류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큰 별이셨던 김동순 선생님!

항상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혈기 넘치고 매상에 의욕적이시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무슨 청천병력입니까?

은화하지만 흐트러짐이 없이 깨끗한 선비의 모습과 너그러운 인품이 마치 이겨울의 국화와 같이 은은하게 느껴지시던 선생님을 이제 더이상 뵈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비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크신 가르침을 받아야할 저희 후배들을 두고 무엇이 바쁘셔서, 어찌하여 그토록 속절없이 홀연히 떠나셨습니까?

저희들의 슬픔과 애절한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겉혀 속에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반짝이는 지혜와 진실이 담겨져 있는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김동순 선생님!

모교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30여년의 교직생활과 20여년간 개원의로 몸담아 오시면서 학자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존경받는 의료인 원로로써 선생님은 결코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그런 소박한 길을 걸으셨던 선생님의 삶은 치과계에 커다란 발자취를 각인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평생시 생활철학은 공사를 분명히 하시고 대의를 존중하시며 오로지 사회에 봉사하신다는

일념으로 가득차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치과대학장 시절에는 오로지 후학들의 연구시절 확충에 온갖 정열을 쏟으셨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에 계실때에는 전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면서 난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시어 협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일들을 우리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근년에 와서도 한국치정회를 창립하시고 국민구강보건향상과 치과계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시는데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실천적인 선생님의 사회활동은 우리 모두 치과의료인들이 본받아야 할 최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이렇듯 커다란 업적을 이룩했으면서도 결코 드러내 놓지 않으시고 학문과 절도와 겸손함을 유지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영원히 떠나셨지만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선생님이 계시던 그 자리를 우리 동료, 후배들이 지킬 것이오니 저 세상 더욱 밝은 곳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명복을 빕니다.

1996년 12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이기택

弔 辭

故 金東順고문을 추모하며